

제438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31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부터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후반기에도 또 예결소위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अच्छ고 효율적인 예결소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전반기에는 예결위원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문체위 위원님들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차례 되셨습니다, 인사말.

○정연욱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장님 모시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렇게 소위를 함께하게 돼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안)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와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위 자료 중에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은 가급적 특별한 질의나 토론 없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07분)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광주에서 바로 올라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알찬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정준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한 5건 또 자유롭게 좀 조율하시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기획조정실 사안인데요 연번 1~4번 사안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재무결산 오류 재발 방지 필요 건입니다.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3건의 회계처리 오류가 확인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재무결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번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과소편성 개선 필요 건입니다.

세입 중에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수납하였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등 관련 수수료가 2024년부터 면허료 및 수수료에 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등 수수료를 고려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고 연례적 세입 과소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5쪽 3번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개선 필요 건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매년 초과수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시정요구하면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전체 부분을 총괄 지적하시면서 예산집행이 이월, 불용 또는 성과지표 관련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사업능력에 부합한 예산 교부 등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시정이 아닌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게 착오로 인해서 발생했고 정정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안해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7년 정부안에 면허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개선 필요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고 27년에는 문제를 해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인데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야 하는데요.

일단 시정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은희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계원 위원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래 걸리니까 주의로 가지요.

○임오경 위원 정정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조계원 위원 주의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그다음에 2번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 과소편성 개선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여기는 김승수 위원님,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제도개선으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음, 연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김승수 위원 초과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위원님, 세입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과 수입과 세계잉여금, 3개가 있는데 정부 예산편성이 통보가 되고 나면 세계잉여금밖에 조정할 항목이 없어서 이게 늘 과소편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 26년 것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못 했지만 내년 것은 확실히 해서 지금 거의 한 370억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편성을. 그래서 27년부터는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4번은 정부가 수용한 건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수용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그래도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은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철회가 됐으니 연번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6번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지금부터는 문화정책관 소관 사항들입니다.

5번 사항은 서면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사항이고요.

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고 직전에 두 분이 다 오셔서 가지고.

김승수 위원님은 발언하셨지만 그래도 인사 한말씀해 주시고.

○김승수 위원 충실하게 결산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때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제가 앞으로도 최고위 회의랑 겹쳐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서 진선미 위원장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고맙습니다.

보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6번 건입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의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건인데요.

이것은 실행을 부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회계연도의 집행을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셨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건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후속 절차가 연례적으로 지연됨에 따른 실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설계공모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인 충청남도와의 긴밀히 협의하고 유사한 분쟁으로 인한 집행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안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 사항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건입니다.

이 사업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청년문화예술패스 전체 이용금액의 41.2%가 영화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가능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사용처 확대 등 집행실적 개선과 이용 분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의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월에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K-헤리티지 벨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에 설계 중이고 이월예산은 올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번 청년문화예술패스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등 개선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제가 또 다 지적을 한 거라서……

일단은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하고 헤리티지 벨리 이것은 집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사업들인데 건물 완공 후에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말 그대로 이게 건립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용물을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인지 또 관람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부 의견에 그것은 동의하고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거기 8번 청년문화예술패스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그때는 제도개선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또 지적이 됐고 집행률도 올해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주의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조계원 위원 다른 것도 넘어가는 겁니까, 8번까지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승수 위원 아니지, 앞엣것은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8번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조계원 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부에다 예술패스 사업이 활성화하려면 영화나 공연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까지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나 공연 그리고 도서 이런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대폭 늘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오히려 늘려 나가야 되는데 주의 조치를 하게 되면 기재부나 기획예산처나, 오히려 예산의 삭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영화나 공연이나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집행률 자체가 계속 부진한 것 자체는 예산 확보에만 급급했지 과연 여기 언급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사용처를 넓히고 이런 부분까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셨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누가 문화예술 향유지원이라는 이 항목 자체를 거부하겠습니까. 다만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 부진, 집행률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면 당연히 예산 삭감 문

제니 홀드하라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연 도대체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정부 측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연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김승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참 뼈아픈데 사실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공연·전시만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공연도 콘서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콘서트를 넣으니까 조금 높아졌고 그다음에 영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영화를 넣으니까 작년에 됐던 게 93%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도서까지 합쳐지면 좀 더 청년들 수요가 충족되고 그러면서 청년들 문화예술 향유가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작년에 지적했었던 것은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집행이 전부 되지 않는 이유가 사용처 확대 부분도 있지만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린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처 확대를 더 고심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은 시범사업이었고 올해 본사업인데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판매처도 그동안은 2개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인 판매처가 티켓링크나 CGV나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여기 청년패스에 웹소설, 웹툰도 지금 포함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명수현 담당 국장 문화정책관 명수현입니다.

웹소설은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문화예술 분야인데 하드로 된 것, 웹·전자도서는 아닌 것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발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94.8%까지 발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발급자 중에서도 사용자 이용률이 93.8%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문화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역의 청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연·전시도 대폭 확대를 해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연·전시 문화부 사업이 633개였다면 올해는 1186개로 늘려서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사용률이 전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달라지게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부분을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웹툰, 웹소설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웹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 영화, 계속 상호 선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작품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의 이용, 또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역 이용에 대해서는 플러스한다든지 일정 부분은 전국 평균으로 주더라도 지역 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도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주문하는 차원에서 정부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6번과 7번 그리고 8번 제도개선으로……

○조계원 위원 웹소설, 웹툰도 포함하는 걸 여기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 도와주시면……

○조계원 위원 웹소설과 웹툰도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차관님, 위원회에서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게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분야 확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역격차 완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거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이걸 확대를 해 나가고 지역격차 완화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 걸 다 알아서 저희가 제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런 시범사업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안착하기 전에 확실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적극적으로 정책 보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예술정책관 소관이 9번부터 23번까지인데요 먼저 5건씩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3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건입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회계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들이 장기 재직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속 학교 직원들의 전보 주기를 앞당겨서 장기 근속자의 발생을 줄이고 종합감사의 실시 횟수를 늘리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로는 시정과 주의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공연 인프라·프로그램의 수도권 편중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건입니다.

공연장 수와 공연 개최 실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공연 인프라·프로그램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거점 공연장 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기획 인력, 운영비, 우수공연 유통을 결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고, 시정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1번 12쪽입니다.

예술활동증명제도 처리 지연 개선 필요 건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사업이 최근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율이 하락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역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분산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역문화재단 등의 예술활동증명 최종 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하고 심의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건인데요.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가 모두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주요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 대상 심사 강화 필요 건입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만기 전에 상품 해지 등으로 선정 취소되는 일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번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시정과 주의 주셨는데요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것 회계비리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인사조치 했고 앞으로 3년 이상 장기 재직자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0번 공연 인프라·프로그램의 수도권 편중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예술활동증명제도 처리 지연 개선 필요.

시정과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 인력 올해 한 8명 대폭 늘렸고요 내년에도 확실히 더 늘리겠습니다.

다음, 12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 대상 심사 강화 필요.

시정과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적립계좌 사업 참여자가 중도 포기할 때 다음 해에 참여 못 하도록 하고 사업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는 차례입니다.

일단 먼저 9번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래 문체위를 하셨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적극 내 주고 계셔 가지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김승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조은희 위원님하고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회계 비리 문제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호텔에서 10박 숙박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회계를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특정 업체에다 몰아주기를 하고 갓 하나에 8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골동품 가격을 좀 아는데요 조선시대의 오래된 골동품들도 500만 원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디 갓 장인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길래 800만 원씩이나 그렇게 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가, 이것 말고도 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이런 회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이정문 간사님께서 주의를 주자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일단 주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통예술고 이렇게 계속 문제 많으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 건은 갓 얘기는 아니고 호텔에서 잔 것처럼 꾸며 놓고 허위 영수증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했는데, 직위해제시켰습니다. 직위해제시켰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전통예술고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여기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임오경 위원 아직 임명이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지금 공모 중이고 2차 심사 중입니다. 일단 교장 선임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관리체계 부분도 서울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사 선발이라든가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여기는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안에 지금 교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외부강의도 하고 이런 것 포착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예술고는 감사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분명히 들여다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교장의 부재중이 너무나 갑니다. 장기전으로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것 관리 감독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1차 부결, 2차 부결, 지금 3차까지인가 교장선생님 선임이 계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교장선생님이 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임오경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 감안하셔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선임이 부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외부 제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진선미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후보자가 부적격이 돼서 다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가장 최근에 종합감사 언제 했나요, 전통예술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작년에 해서 징계가 나와서 관련자들 직위해제를 했고 최근 교육부의 교원징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징계 처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1번, 12번, 여기 김승수 위원님, 어떻게……

○김승수 위원 그런데 10번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그건 수용이 돼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책이 있나요?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화예술 공연 인프라 확충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 10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 간 격차?

○김승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입안할 때부터 해서, 사업 공모할 때부터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 10억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을 시켜서 공연장 포함해서 지역 거점시설 전체 용역을 수요조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공연장이 장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수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 역량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국비 6 대 4나 5 대 5나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필요해도 못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국가에서 좀 더 높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연구용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공연 인프라, 거점으로 해서 시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하고 공연 인프라 부분을 결합해서 공모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이걸 순수한 공연시설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몇 개의 공모사업은 이미 체육시설 플러스 공연 인프라가 결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돐구장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정연욱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돔구장이 아레나 조성하는 건데요, 그것은 체육국에서…… 공연예술시설로만은 독자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로 가면서 아이돌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체육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공연 인프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김승수 위원님은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페라극장 그것보다는 좀 소규모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아는 체육시설과 결합한 공연 문제, 돔구장에 준하는 그런 시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공연인프라시설, 이건 소규모잖아요, 1000석 정도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도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다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건 체육시설 소관으로 간다는 개념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1000석이니까 이건 규모 자체가, 비교가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진선미 그 아레나는 아마 큰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1000석이라는 규모 자체는, 그러면 거기 올리는 공연 자체는 성격이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어떤 공연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를 거야. 아이돌이나 대형 인원을 동원하는 공모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1000석이라는 게 애매하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올리는 공연이라는 건 제한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 헛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중소 공연 인프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진선미 11번.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예술활동증명제도 처리지연 개선 필요에 관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바 있어 가지고 운영시스

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예술활동증명제도개선TF도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8월에 심의위원 FGI도 진행을 했고 예술인 현장간담회도 있었을 텐데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예술활동증명 너무 늦는다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 지금 당장 처리가 안 되면 일부는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시든가 이런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작년에 12주 걸렸던 거 위원님이 도움 주셔서 가지고 8주로 줄었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광역문화재단과 협력을 해서 거기서도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8주도 길쭉아요. 좀 더 줄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온라인 심사는 안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심사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심사 같은 경우는 일부 온라인 심사를 하고 있고 정성심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님, 작년에 신청 건수에 비해 승인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일단 코로나 시기에 자동연장제도가 있어서 기한이 만료된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자동연장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요.

○조계원 위원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12번까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된 거니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번은 김승수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선미 알겠습니다.

저희 13번까지였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소위원장 진선미 13번은……

○김승수 위원 13번은 제도개선, 정부 의견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선정취소된 인원이 100명이 넘고 불용액도 1억 한 5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담당자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시정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밖에 없어서, 시정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는 거라서, 사실은 제도개선 바로 윗단계가 주의입니다. 제도개선-주의-시정인데 이것 주의로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차관님, 이것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하는 인원이 지금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포기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작년 신규사업이라 아직까지 조사는 안 했는데 아마 어려운 예술인들이 하기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임오경 위원 있을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사유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지표를 좀, 그런 평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설문조사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그 보완책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부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하여튼 선정된 이후에 포기하면 애초에 선정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놓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전에 좀 잘 걸러 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능할지는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 하여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4번부터 전문위원님 의견……

○조계원 위원 이걸 주의로 가겠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진선미 13번은 주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4번부터 18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번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사업 집행 부진 방지 필요 건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위한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건이 2024년도에도 전액 이월돼서 결산에서 지적받은 바 있어서 국회의 지적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셨고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각각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15번 사항입니다.

전용을 통한 정보화 사업 추진 재발 방지 필요 건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자체 전용을 통해서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연도 중 전용을 통해서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수입 확충 방안 마련 필요 건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수입 비중이 지금 15.6%에 불과하고, 따라서 일반회계 등 외부 재원 의존율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수입 확충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자체수입 발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7번 공연예술 창작 지원의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건입니다.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공연예술창작 기반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공연예술창작지원 사업의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공연 시에 지역 공공 공연장과의 기획 대관 매칭 제도화 및 비수도권 지역 내 중소규모 창작 공간 확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건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된 전통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사업 및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비 중 사무실 공간임차료와 콜센터 운영 용역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을 시정요구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4번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사업 집행 부진 방지 필요.

시정과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6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하고 통합수장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전용을 통한 정보화 사업 추진 재발 방지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수입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시설운영수입 확대 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17번 공연예술 창작 지원의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희 문체부도 이것 일반회계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4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14번은 꼭 시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도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 가지고 2년 연속 이게 전액 불용 또 이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디자인박물관 자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콘텐츠 수집 또 아카이브 구축인데 가장 핵심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한 번은 시정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어떠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사업이 세종시 안에서 네 가지의 박물관들이 이루어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조성을 하던 사업인데 누가 박물관 단지를 운영하느냐로 계속 논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결국은 문체부가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으니 문체부가 그 단지를 다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된 게 최근입니다. 그 논란 과정에서 우리 문체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사업의 착공이 좀 연장된 면이 있고요.

그런데 부처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을 해서 예산을 두 번이나 계속 불용시켰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시정으로,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2년 연속이라고 하셨는데 2024년에는 이월 집행 사례……

○**김승수 위원** 집행을 못 했으니까 전액 이월한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된 거고요.

제가 아쉬운 점이 남는 거라면 2025년에도 이월이 가능했는데 왜 불용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설명을……

○**임오경 위원** 2024년에 저희가 지연 감안을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장고 부분이, 수장고가 원래 행복청에서 추진한 수장고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돼서 작년도까지 수장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자료는 수집했지만 실물자료를 했을 때는 수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더라도 수장할 곳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됐고.

작년 말에 9개 중에 일부 2개 수장고가 완공이 돼서 올해 7월부터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제 실물자료도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그냥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2024년에도 이월해도 가능한 거였잖아요.

○**조계원 위원** 이월했다는 것 아니에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2024년에는 이월을 하고 2025년에 불용을 했으니까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그런데 그때 수장고, 수장할 수……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행계획 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주의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잘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지금 해명하신 게 일리가 있어 보여서 주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다 양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양보를 하기가…… 저도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2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예산편성 자체부터 굉장히 엉터리로 했다는 부분이고 앞서서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이월했으면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하나도 집행도 못 하고 2년 연속 이렇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안 물으면 책임을 물을 게 뭐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일단 수장고가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수집이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복청에서 추진할 때 기존에 사업 자체를 잘못 추진한 거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 문체부가 떠안고 수장고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시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문체부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김승수 위원 다 제가 양보를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시정 요구했던 것이 숫자가 얼마나냐면요 1차관 소관만 해서 18개를 시정을 요구했었어요. 이때까지 1차관 소관 시정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뒤에 또 검토하면서 나오겠지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정 요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때는 문제가 진짜 컸어요. 이건 단위가 다릅니다. 이것 단위가 다르니까요.

○김승수 위원 단위가 달라도 그렇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1차관 소관 시정이 9개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요구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시정 요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기까지는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일단 결정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그 조치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승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뭔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그냥 현실적인, 다 타 부처의 어떤 진행에 대한 문제가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여기서 한들 지금 상태에서는 시정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을 할 뿐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죽 추진이 돼야 되는데 추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는 주의도 굳이, 이렇게 생각 드는데 한번……

○**김승수 위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됐고,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콘텐츠하고 아카이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무작정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예산편성 사례라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문체부가 하던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행복청에서 주도하다가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평가관 이용신** 예술평가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공기가 연장이 돼서 금년 7월까지로 수장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돼 왔던 상황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책임의 제일 발단은 행복청이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시정 요구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조계원 위원** 시정 하게 되면 행복청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문체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 사업으로 돼 있어서……

○**임오경 위원** 우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위원님, 이것 너무한데요. 괜히 억울한 문체부한테……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만든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귀책사유가 없는 공무원이 왜 책임을 져요.

○**소위원장 진선미** 일단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 14번은 보류한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19번부터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러면 16번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는 거고……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조계원 위원** 16번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논의를 안 했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다 된 것,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나머지는 다 동의하신다고……

○**김승수 위원** 그것까지, 앞엿것 19번 이제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랬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앞에 설명드린 5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인 14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지금 보류하기로 하고 넘어가셨고요. 그 이후 시정요구가 두 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15번은 지금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고요.

16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도개선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은 동의하신다고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계원 위원 김승수 위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자체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번에 반드시 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자체수입 확충 문제가 굉장히 문제고 경상지출 절감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복권기금법, 공연법 이런 것들을 발의해 놨거든요. 특히 공연법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진선미 소위원장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법안이니까 감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계원 위원 18번 아직……

○김재원 위원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16번만?

○소위원장 진선미 16번은 끝났고 17번은 수용됐으니까요.

또 의견 있으신가요?

○김재원 위원 예, 18번 이어지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결산 상정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임차료하고 콜센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안정적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는 진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이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여러 루트에서도 수입 확보방안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도 예산 체육진흥기금에서 1000억을 했고 또 올해 4월에 추경으로 한 760억을 저희가 반영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을 반영해야 되는 사안인지…… 이것 자립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이면 입법, 어떤 루트가 필요한 거라면 정부 측에서 주셔야지 이 순진한 체육인들이…… 체육진흥기금 가져다가 지금 관광기금, 문화, 영화 다 그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2024년, 25년,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더 이상은,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TF라도 조성

하셔서 진짜 특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은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방법들을, 여러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것이고 꼭 해 주시고요. 이걸 어쨌든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이고 실질적으로 경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콜센터 운영비나 공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문체부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건 제도개선으로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어쨌든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요 정부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은 저희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전문위원님, 18번까지는 진행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9번부터.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9번부터 23번까지 5개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 건입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계약자 중에 수도권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비수도권 융자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면 접수창구를 전국적으로 다각화하고 전면적 비대면 대출심사 및 서류제출 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연체액 상환을 위한 노력 필요 건인데요.

코로나19 특별융자사업과 관련해서 2027년 3월부터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도래될 예정인데 미상환과 연체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코로나19 특별융자의 연체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1번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집행부진 재발방지 필요 건인데요.

지금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하고 미술전시관람료 지원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한 문제와 과거 사업의 집행실적과 수요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재추진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과거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되었던 사업을 충분한 수요예측 없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재편성해 집행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예산설계 방식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편성되도록 주의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시적 할인쿠폰 방식의 관람료 지원 대신 직접 지원 또는 관람료 지원 사업을 문화소외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 등 대안적 정책수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22번 사항입니다.

부적정한 비목으로 워크숍 예산 집행 건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워크숍에서 국내여비와 관서업무비로 집행해야 될 식비 등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외의 현금성 물품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 워크숍 개최 시 예산 비목 체계에 맞게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집행을 철저히 하고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각각 제시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사항입니다.

청년예술단체 육성 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필요 건인데요.

청년예술단체 육성 사업 집행률이 35.2%에 불과하고 또 매해 예술단이 새롭게 구성·운영돼야 되는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청년예술단체 육성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내 마무리 등 제반 여건을 철저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과도한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공모절차 없이 지정교부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주문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19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역문화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코로나19 특별용자 연체액 상환 위한 노력 필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번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 집행부진 재발방지 필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향후 수요예측을 면밀히 해 가지고 연내에 신속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번 부적정한 비목으로 워크숍 예산 집행.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문예위가 앞으로 이런 일 못 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청년예술단체 육성 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집행관리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관리하도록 하고 이게 작년에는 처음 생겨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해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19번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19번, 정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20번, 코로나 때 예술인들이 거의 수입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상환 못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도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

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그래서 나눠서 단기·중기 부실채권 같은 경우는 자꾸 상환 독촉하고 장기로 넘어가는 것은 신용정보사에 위탁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이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부 다 회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돈을 다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줘서 소멸시효를 늦추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하면 어차피 소멸시효가 늘어납니다.

○김승수 위원 21번 미술 관람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큼 저조하면 제도개선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문예위는 존경하는 진선미 소위원장님도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고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까지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백히 불법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21번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공연이나 미술 관람료 지원 자체가 이렇게 집행률이 현격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일단 먼저 예산추계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근거 자체가 좀…… 수요예측이 너무 부실하니까 집행률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식의 수요예측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던 건지, 실제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나 먼저 한번 들어 봅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공연하고 미술전시 관람인데 공연은 그래도 한 70% 정도 되는데 미술……

○정연욱 위원 공연은 주로 어떤 것까지, 뮤지컬까지 다 포괄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뮤지컬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미술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미술은 돈이 워낙 소액이고, 들어갈 때 입장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을…… 대개 할인권은 추경으로 들어갑니다, 위원님.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편성이 용이한 면이 있어 가지고 재정 당국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조금 과다편성되는 면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없었습니다. 미술은 이제 더 이상……

○정연욱 위원 없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할인권은 안 된다 해서……

○정연욱 위원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들 자료라서 여기에는 시정요구된 내용만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을 거다, 미술 부분은 당장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재정 당국과 협의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대안은 없나요? 이런 부분의 실집행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게 꼭 예산추계를 하는 것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의 지원체계라는 건, 건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른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먼저 20번 관련해서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특별용자가, 생활안정자금이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용자를 받아서 써야만 했다는 그런 사정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일 경우에 또 수입도 그만큼 적고요.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홍대 앞이나 이런 데를 가 봐도 거기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무대가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이 부분의 소멸시효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로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료 지원 사업의 항목명을 변경하셔서…… 보면 연극, 뮤지컬 등에는 지금 하고 있고 미술은 너무 지원이 안 돼서 없애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대 기획사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아이돌 중심의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2군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대중음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커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을 오히려 포함시키고 지역 쪽의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감안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진선미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연번 22번 항목입니다.

국내여비와 관서업무비로 집행해야 될 내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한 내용인데 이것은 명백한 예산집행지침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서는 지금 징계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각

심을 반드시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시정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저도 늘 아쉬운 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더군다나 예술인들을 상대로 대출이 맞는 거냐 이것이 늘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행업도 그랬고. 사실 애초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냥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대출로 해 놔 가지고 채무 환수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전제로 해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리고 22번은……

○조계원 위원 제가 22번 얘기 좀 하려는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보니까 2024, 25년이면 정병국 위원장님 시절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지규정을 위반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모르고 집행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버리면 너무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다시 한번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에서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말씀 기회를 주시면……

사실 이게 24년, 25년, 연이어 두 해를 갔는데 워크숍에 여비나 업추비로 써야 될 돈을 예컨대 수용비나 이런 걸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비나 업추비는 어디나 다 귀하고 수용비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잘 안 하는 건데…… 조계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사실은 이번에 한번 시정조치를 내려서 경각심을 깨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산하기관이니깐 다른 기관에도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조금 전에 23번까지 저희가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23번까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주셨고.

22쪽의 21번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받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23번은 김승수 위원님이 아까 이 부분은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별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9번도 동의해 주셨고 20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고, 21번은 제도개선이지요?

○김승수 위원 21번은 저는 주의를 얘기했었고요.

○소위원장 진선미 주의를 얘기하셨다고요? 제도개선의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뒤에 시정 하시니까 이걸 제도개선으로……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21번 제도개선으로, 22번은 시정조치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4번부터 28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정책관 사업인데요. 먼저 28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 필요 건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존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의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에 관람객 혼잡 완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료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26쪽 25번 사항입니다.

실제 공정에 맞춘 보조금 적기 분할 교부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건인데요.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ODA 사업인데요. 현지 여건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서 실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 하였고.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그냥 교부율로 끝날 게 아니라 공정률 같은 실제 성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와 관련된 시정요구를 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6번 사항입니다.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사업 예산 편성·집행 체계 개선 필요 건인데요.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어서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 구조를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외전시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업무 협력을 해서 업무 중복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므로 시정요구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다음, 28쪽 27번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연구용역 사업 예산 재이월 건과 관련해서는 국립박물관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2024년 이월된 것이 다시 계약기간 연장을 하면서 재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일반회계 예산 사업에서 재이월 가능 요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을 위반한 계약 연장과 계약 연장을 통하여 재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시정요구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번 사항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잉여금을 감당한 보조금 편성 필요 건인데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매출액, 자체수입 등이 계속 증가하면 이만큼을 수입으로 반영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수입 증가분을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아서 일반회계 보전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 사항을 좀 시정해서 수입 증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

하고 정부 일반회계 보전금을 줄여서 예산안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시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4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 필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25번 실제 공정에 맞춘 보조금 적기 분할 교부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이건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연내 집행 완료될 예정인데 이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사업 예산 편성·집행 체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음, 27번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재이월 집행 재발 방지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때 재이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정부가 섰다운하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잉여금을 감안한 보조금 편성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 24번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문제는 지금 정부 입장이 정확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정부 입장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고요. 발표한 거는 유료화를 한번……

○정연욱 위원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유료화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거의 세계 3위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정연욱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지금 너무 과밀화되고 있고 또 해외 다른 유명 박물관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관람료 수입이 실제로 운영상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관람료 수입을 받으면 그거는 국고로 여입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관람료가 국고로 들어가니까 국중박이 운영되는 데 실제 플러스되는 요인이 덜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관람료 수입 자체가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상 기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라는 데 이용률이 높아지면 거기 돈은 또 박물관문화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여입되는 규모를 감안해서 증액할 때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 예산 비목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박물관 운영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수입을 박물관이 바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소위 빼돌린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조금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공론화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적게 받는 구조거든요,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만이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수지차 보전기관 제도가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 국비와 지방세 이런 거 관련해서도 보면 세목 조정이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서, 또 걷어 가는 세금은 딱 데 전용이 되고 하는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다른 여러 관광 분야에도 제가 볼 때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안 해 주면, 유료화한다고 관장님이 그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검토라는 건 사실상 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한 거니까. 검토라는 게 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한 거지, 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공론화 과정에서도. 어떻게 푸실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연구용역 해 가지고 대충 결론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은 유료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브리티시(British)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무료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료가 나올지 무료가 나올지 결정을 신중하게 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K-컬처, 특히 K-헤리티지나 이쪽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이걸 보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 조건과 사정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국회에서도 간담회나 이런 거 좀 하셨었지요, 의견 전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이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고궁 입장료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고궁 같은 경우에는 밀려드는 관람객으로 인해서, 유네스코에서 무료로 해 줘라 이런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화장실을 운영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장이 많이 되고 유료화를 해도 결국은 국고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옴으로 해서 사업 확장도 안 되고, 거기에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도 보충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된 박물관이든 고궁이든 관람할 수 있는 곳들 혹은 또 박물관문화재단처럼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가지고 수지차 보전기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정부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관람객의 편의성을 좀 높여 줘야 된다, 일괄 패스나 통합 패스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둘러볼 수 있게 해 주면서도, 비용에서는 통합 패스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주고 편의성을 제고하자,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원래 또 고궁은 입장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입장료를…… 그 예산이 별도로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궁 관리에 들어가지요? 국립중앙박물관하고는 좀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경복궁이나 고궁 입장료 받는 곳도 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도 여입이 됩니다.

○조계원 위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환류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지역문화정책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고궁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일단 국고에 들어왔다가 관람객 서비스 개선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다음 해에 반영됩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저희가 수입을 거둬들이면 고궁박물관처럼 수입대체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처랑 협의하면 관람객 서비스 질 개선이나……

○조계원 위원 아까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차관님이 여입되는 부분만 얘기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처랑 협의해서 수입대체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 진작 얘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항들이 다 같이 있는 거라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주의나, 그러니까 일부수용, 정부 의견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승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수용은 수용대로 하고, 일부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사업인데요.

29번부터 32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건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이 이월되고 또다시 2026년 예산도 추가 이월이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연례적 세목 조정을 통한 포상금 집행 관행 개선 필요 건인데요.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포상금은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집행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를 기타운영비로 세목 조정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상금이 필요한 경우에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2쪽 31번 사항입니다.

지역자율계정 예산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인데요.

이게 균특 안에 지역자율계정으로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문제가 계속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지역자율계정 예산편성 방식에 적정한 것인지 또 실집행 규모에 비해서 예산편성 규모가 적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 부진과 사업 포기가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번 사항입니다.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건입니다.

이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및 AI기반 창의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교부금이 전액 이월되었고 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사업이 설계 공모 관련 수사 진행으로 중단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중간 점검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형태를 시정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사업체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잘해라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9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월 및 불용 규모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연례적 세목 조정을 통한 포상금 집행 관행 개선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지역자율계정 예산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내역사업별로 집행 점검 강화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통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다른 건 정부 의견에 동의하고요.

33페이지 32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앞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6년 동안 죽 있으면서 한 번도 이게 지적이 안 된 해가 없을 정도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추경에 끼워 넣은 사업들이 전혀 한 톨도 집행 안 된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연례·반복적인 문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은 시정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6년 동안 계속 반복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광주 입장에서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 사업 챙기려고 제가 문제 위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잡아 보겠다라고 하시니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승수 위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정 위원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잘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제도개선은 해야지요.

○김승수 위원 아니, 주의로 얘기했잖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주의로.

그러면 29번은 주의로 의견 동의됐고요. 30번은 애초에 수용이 주의고, 31번은 제도개선이고 그리고 32번은 주의로.

33번부터 이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번부터 39번까지가 콘텐츠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총 7건인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번 사업 편성체계 재개편 검토 필요 건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부사업에 영상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내역사업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세부 장르로 내역 변경, 세목 조정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만화산업 육성, 캐릭터산업 육성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나의 세부사업에 성격이 다른 장르의 내역사업을 다수 편성하지 않도록 주문하시면서 시정요구를 주의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34번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의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건인데요.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 사업이 국내 플랫폼 연재 후에 해외 연재를 선택적·사후적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원래 취지에 해외시장 진출 지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 연재만으로 종결되는 선정작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게임인재원 교육생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건인데요.

지금 게임인재원 교육생이 선발되고 난 이후에 진로 재설정을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자퇴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선발 단계에서 중도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로 적합도 검증을 정교화하거나 또 이후에 멘토링 등을 통해서 학습 적응 지원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의 36번 사항입니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 재발 방지 필요건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사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자의적인 예산편성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37번 국제 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개최 지원 사업예산 환수 등 시정 필요 건인데요.

이게 국제 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개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정부광고방식으로 전환해서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해서 사업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에 합리적 사유 없는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성과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동 사업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20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다음, 38번 사항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자체 재원 확보 및 부담금 정비 시 사전 검토 실시 필요 건인데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법안이 3월에 났고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이 7월에 났는데 사실상 예산 집행은 3월부터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영화발전기금 자체에 타 기금 전입금이 자체 수입을 크게 웃도는 문제를 아울러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규모 부담금 정비나 재정구조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해라라는 주문과 그다음에 타 기금 전입 의존 축소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금 수입·지출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법령 개정 시기와 연동하여 적절하게 이행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

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39번 사항입니다.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 운영방식 검토 필요 건인데요.

이 사업이 단체 영화관람과 30분의 직업 특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순 극장 관람형인 ‘극장 너랑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래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 인식하에서 사업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영화발전기금 취지에 부합하고 문화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33번 사업 편성체계 재개편 검토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34번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의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작년 수혜 작품의 약 78%가 해외 연재 중입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게임인재원 교육생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주간의 프리스쿨 과정 도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번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 재발 방지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7번 국제 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개최 지원 사업예산 환수 등 시정 필요.

이것은 저희가 시정요구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할 텐데, 다만 36쪽 보시면 ‘20억 원 환수 조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총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개최된 점을 고려해서 이 20억 원만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번 영화발전기금 자체 재원 확보 및 부담금 정비 시 사전 검토 실시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서 자체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번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 운영방식 검토 필요.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한국 영화 추천작 중심으로 해서 영화관람-교육 연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너랑봄’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게임인재원 1인당 교육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입니다.

저희가 26년 예산이 52억 원 정도인데 지금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인당 산술

적으로만 따지면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1인당 이 정도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부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렇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중도 탈락률 보면 처음 도입 당시인 2019년도 같은 경우 보면 26%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5기 같은 경우에는 33%, 저번 6기 같은 경우에는 37%, 탈락률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자꾸 더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탈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단순한 예산상의 낭비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왔으면, 다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그냥 박탈한 것 아니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같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고 주의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개선도 더 붙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자퇴 사유를 진로 재설정이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처음에 65명씩 뽑다가 작년, 제작년에 120명씩 뽑아서 늘렸는데 뽑아서 세 가지 전공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가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것 안 하고 배울 것만 배우고 나오겠다 하고 마음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걸러 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2주간의 프리스쿨 같은 것을 뒤서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실기 능력 이런 것을 봐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연욱 위원** 단순히 이게 프리스쿨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작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 기간까지 어떤 식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지 어떤 최소한도 당사자 간의 협약이라든지 이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환수 계획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3년, 24년에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올해 이미 저희가 사업 기간을 원래 2년 교육과정으로 하던 것들을 9개월 과정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일단 개편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팀 프로젝트나 같이 하는 협업 구조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스쿨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진짜 교육을 받을 만한 분들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연욱 위원** 게임인재원이라는 게 저도 실제로 최근에 인디 게임 사장단들하고 만나 봐서 느낀 것은 실제 필요한 교육 내용이나 컨터라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은 하셨

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처음에……

○정연욱 위원 어떤 내용을 더 요구하는지, 뭐 코딩이나 구체적으로 진짜 지금 게임 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그리고 이게 아마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러 가지 잡종의 하나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나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스토리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세 가지로 나뉘져 있는데 현업에 계신 교수님들이 와서 하고 그 교수님들이 계속 현업과 연계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정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취·창업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실제로 팀 프로젝트나 게임 개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게임 개발의 경험들을 충분하게 해 볼 수 있도록, 사실 프로젝트를 해 봤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실제로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교육 자체가 솔직히 커리어 관리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그럴 것이고. 과연 이런 수요에 맞추고 요구에 맞춰서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당장에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 되면 이렇게 교육에 응할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냥 바로 나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을 채운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얼마만큼 절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짜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지 막연히 교육기간을 이수한다, 이게 2030들을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만 가서는…… 기업은 여기서 바로 돈을 버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막연히 프리스쿨을 하신다 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절실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단순한 대학 교육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지금 5, 6기의 최다 자퇴 사유가 진로 재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취업으로 연결이 곧바로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원했던 것 혹은 팀 플레이 혹은 아이템 개발 이런 것에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고 때부터 잘 나가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왔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들어와 보니까 본인이 하는 일과, 이것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공모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어떠한 부분의 인재를 뽑는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가신 건가요?

○김석기 위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잠시 자리를?

아까 39번 말씀 안 하셔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말하신 거라 39번의 일부수용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안 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이 그렇지요?

저도 한말씀드릴 건데요, 37번이요 지금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분석, 불투명하고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입증된 건가요? 지금 조사 중인가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지금 조사 중이고요.

담당 국장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문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절차나 이런 데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견을 주신 20억 원 전액 환수는 사실 저희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서 조치할 내용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20억 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20억뿐만이 아니라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을, 콘서트가 이미 열렸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라는 것은 판단하기는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중립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광화문 권역하고 다른 데 두 군데서 커다랗게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장소 허가를 못 받는 바람에 광화문 지역도 못 들어가고 경복궁 안에, 광화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번 홍례문 사이에서 하는 행사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방송사를 섭외해서 이걸 많이 송출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안 밟혀진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가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저는 ‘사업성과 저조’까지 들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까지도 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래 주시면……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거기서 ‘사업성과 저조 등의 문제’에서 ‘경쟁입찰 중단’하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제가 보기에 그거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원래 콘서트 목표 관객 수가 얼마였나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줄어든 것은 결국 이천 몇백 명으로 줄었고 처음에는 1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1만 명 정도 목표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1만 명 목표에서 2000명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예.

대신 그래서 2200명으로 준 대신에 방송 송출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 방송도 선정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말씀 다 나왔지만 이게 선정된 곳이 은평구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예, 은평구.

○임오경 위원 광화문광장 장소 확보에 실패해서 문제부하고 협의하지 않고, 사업항목 변경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MBC하고 방송을 진행했고요.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그러니까 저희랑 사업변경……

○임오경 위원 사업변경을 합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예, 그렇게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장소 확보 실패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 과정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20억 예산인데 20억 다 환수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액수를 조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억 원 전액 환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한 후에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렇게 정돈해서 이따 확인해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건은 저희가 정부하고 문구를 협의해서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이것 제가 한말씀만……

지금 36쪽의 시정요구사항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 사유 없는 경쟁입찰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이 빠지고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것은 확정, 확인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시정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8번과 39번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관행상 특별히 말이 없으실 때는 정부안에 동의하신 걸로 하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38번에 대해서 한마디만……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이것은 부과금 폐지 제개정이 부처 소관 밖에서 급변해서 징수 근거에 일시 공백이 생긴 사안입니다. 다만 재원의 타 기금 의존이 심화된 만큼…… 그런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심화된 만큼 자체 수입 확충과 절차 정비 병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과금 폐지 제개정이 부처 소관 밖에서 이런 사안들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9번은 김승수 위원님 주의,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에 동의하신 걸로 정리해 놓은 상태고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니까 다음은 지금 한 5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지금 1차관 소관 게 별로 안 남아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조계원 위원 어차피 의결할 사람 없는데, 저도 지금 나가 봐야 되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나가 보셔야 된다고?

○조계원 위원 지금 15분 전에 나왔어야 됐는데 기다리고 있었지.

○임오경 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는 시간을 다 비워 두셔야지.

○조계원 위원 아니,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간 거잖아요.

○임오경 위원 기본적으로 비워 놓고 나와야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뒤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 수용입니다. 뒤에는 대부분 수용이고요 한 서너 개 남아 있습니다, 일부수용은.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한번 진행하시고, 어차피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의결은 아직 안 하니까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서 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럼요. 그러니까 좀 듣다가 편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39쪽입니다.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사업 40번에서 46번까지 총 7건입니다.

먼저 40번은 완성보증상품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와 대위변제액 증가 문제 그리고 채권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40쪽 41번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건인데요.

이게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수익률 부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성과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 41쪽 42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회계원칙 준수 및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건과 다음 42쪽의 43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 수행 기간 설정 건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세부사업명으로는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되고 그 안에 있는 내역사업 그리고 또다시 그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결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연번은 분리를 해 났고요.

먼저 42번 사항은 내역사업인 인공지능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2차 추경에서 들어간 210억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 문제를 지적하시고 향후에는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는 주문을 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돼 있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회계원칙에 어긋나도록 결산 시점 이후로까지 집행하도록 한 편성 방식을 변경하라 이것은 사실상 43번의 내내역사업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 같이 시정요구 주문을 연결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내역사업인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설정하면서 결산 기한이 5월 말인데 법정 결산 기한과 사업 기간이 아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주문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4번은 지역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집행 제고 노력 필요 건인데요.

사업의 실집행률이 너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에 예산에 반영해라라고 주문을 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요구돼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45번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규모 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건인데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정부 지원 예산 규모의 변동폭이 해마다 조금 크니까 그러지 말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안하셨습니다.

46번 지역신문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강화 필요 건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확실적인 지원만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안 되니까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라는 주문을 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0번 완성보증상품의 사고율 감소 및 채권회수를 제고 방안 마련.

시정과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사고율 감소하고 회수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제고 방안 마련.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투자 방향 조정하고 성과분석 강화해서 수익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회계원칙 준수 및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차 추경 실집행률 19.4%라고 쓰여 있으나 8월 현재 98% 가까이, 97.7% 집행했습니다.

다음, 43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 수행 기간 설정.

수용하겠습니다.

44번 지역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집행 제고 노력 필요.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적정 규모 예산 편성하고 이월·불용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번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규모 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지역특수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강화 노력 필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41번 항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시다라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펀드가 수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펀드별 수익률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꼭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가셨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역시 41번 항목 관련해서입니다.

이 모태펀드 출자라는 게 수익 창출을 넘어서 K-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펀드가 되겠는데요. 수익률이 계속 부진하잖아요. 앞으로 민간 투자자

의 모태펀드 참여율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글로벌 진출 및 해외 거점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확장 혹은 자리 잡는 것 이런 것들을 꾀하려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코로나의 여파로 CJ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사실상의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해외에서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만 먹고살겠다 하는 경우에 해외로 진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와의 협력 교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출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참여를 확대할 때 해외 투자자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점화를 오히려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제도개선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선미 제가 작년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모태펀드 관련해서 특히 김승수 위원님하고 김재원 위원님이 의견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우려를 다 전달했는데 똑같은 게 또 올라오니 아마 김승수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김석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터지면 뺨 터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출자를 2000억 넣어서 회수 금액이 36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0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터진 게 크게 터지면 마이너스를 좀 넘고 가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수익률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분 투자하는 쪽으로 좀 넣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리그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40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41번도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고 42번도 제도개선으로.

특pecially 임오경 위원님 말씀 보텔 건 없으시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은 수용이 이미 돼 있고요. 44번은 아까 김승수 위원님 가실 때 지적 안 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45번은 수용 의견이고요 46번도 수용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1번까지니까, 저희가 의결 안 하면, 의결을 못 하면 대기하셔야 되나요, 차관님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대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보류되어 있고 이후는 다 수용이라……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해 보지요, 51번까지.

괜찮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47번부터 51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번까지 정부 입장은 다 수용입니다.

47번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 대응 체계 마련 필요 건인데요.

이게 생성형 AI 확산으로 관련 상담이 되게 늘었는데 저작권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직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상담을 감안한 어떤 조직이나 예산, 인력 지원체계를 검토해라라는 주문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다음, 45쪽 48번은 해외저작권 사무소 운영체계 점검 필요 건인데요.

이게 해외저작권 침해 대응 수요가 다양한 나라로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침해 대응 수요에 맞게끔 해외저작권 사무소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 내용으로 제도개선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46쪽 49번 사항입니다.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사업의 사전검토 강화 필요 건인데요.

체코 문화원 신설 예산이 집행단계에서 주재국 사정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예산으로는 집행되지 못하고 한 34.5%가 다른 용도로 전용 집행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사업 추진할 때 미리 주재국과 협의 진행 사항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이런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라는 주문으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50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건인데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실집행이 저조하고 또 이에 따라서 미집행액이 대부분 이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확보 여부 확인 등이나 사전 이행점검 절차를 강화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또 지자체한테 사업 추진 독려하는 등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주문하시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51번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및 해외출장 관련 철저한 관리 필요 건인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행사 용역업체 선정 시에 긴급한 행사로 해석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위원장의 미국 출장 건이 개인 업무성으로 할 수 있는 폐노메는 행사 추진이 조금 더 많아서 공무로 간 출장의 성격에 적절하냐 이 문제 지적이 있었고 또 공무 일정 직후에 자부담이지만 개인 일정을 연결해서 쓴 부분과 관련해서 귀국 연기 승인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 조직 신설 시에 행사 일정 수립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민간 위원의 공무 국외출장 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입장은 위원님 제안하신 시정요구 유형에 전부

다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7번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 대응체계 마련 필요, 48번 해외저작권 사무소 운영체계 점검 필요, 49번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사업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 50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필요 여기까지 다 제도개선이어서 전부 다 수용하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51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및 해외출장 관련 철저한 관리 필요, 주의 인데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47번 관련해서는 제가 문체부가 아니라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토론회 진행을 추진하다가 이틀 전에 취소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AI 관련 저작권 상담을 감안해서 적정 조직, 인력 및 예산 지원 체계를 하기 이전에…… 이것 잘못하면 불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성형 AI 콘텐츠와 관련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약관 개정을 통해서 51%의 인간 기여만 인정이 되면 100%의 인간 기여와 같은 가격을 매겨 주는 저작권 등록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고 문체부에서는 그 약관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한 상태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도 잘못된 게 저작권 등록 안내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AI 콘텐츠와 관련된 것을 벌써 받고 있어요.

저는 가수 출신이니까 실연자이기도 하고 작곡·작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곡·작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51%의 인간 기준 인정하자 그래 버리면 일단 제일 먼저 직업을 잃는 것은 실연자들이 될 거고요, 연주자들서부터. 그러면 연주자들과 연계된 악기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순차적으로 다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생태계가 같이 무너질까는 우리는 예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등록부터 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체부와 우리 전체 저작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AI 생성 콘텐츠를 다 인정을 해 주겠다, 100% 인간 기여와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부분에 관련한 적정 조직과 인력 및 예산 지원체계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승인을 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작권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해외의 어느 나라도 이것을 법으로 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면서 음악 생태계 혹은 창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예상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루어 냈을 때 그때서야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인력을 보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만 또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토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로펌의 변호사들 아니면 저작권위원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이었어요. 왜 현실에 있는 그런 창작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신다고 그래도 예산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방금의 그런 문제 자체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존에 전제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인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정돈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의 제도개선의 의미는 그게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저작권위원회에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렇지만 어쨌든 저작권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될 거라서……

방금 김재원 위원님의 우려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과정에 이것을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쪽의 전문인력도 보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력으로 편성이 돼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원 관련해서요 체크가 그걸 민간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지 외교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입장인 나라들이 여러 곳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여러 곳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딱 한 곳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체크에서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 법이 바뀐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담당 국장이 말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지금 문화원은 대사관의 소속기관이어서 외교기관 지위를 통상 갖고 있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법인 형태도 운영을 권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체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UAE라든가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소수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체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애초에 그랬는데 모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전에는 외교기관 지위를 인정했는데, 25년도 1월에 법이 바뀐 이후에는 법인으로 설립하라고 권장을 했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화원을 외교기관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서 외교부에서는 조금 더 설득을 하면서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은 보류 상태인 거예요, 그건?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예,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보류 상태…… 저는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 나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간 법인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별도 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쪽이 입장을 바꾸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 해결 방식도 같이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법안이 필요하면 법안도 추진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원이 민간 법인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유연하고 그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다만 외교부나 몇 군데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일단 법안은 추진해 주시고, 외교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 보면 문화원에 대한 열망이 정말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교민이시고 파독 간호사이신데 거의 90대이신 교수를 하신 여성 작가님이 그렇게 저만 보면 스위스에도 문화원을 해 줘야 된다, 왜 거기 안 하나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웬만한 나라에 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들을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압하여 진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것은 또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장님, 마지막에 부대의견 좀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4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대의견 6건이 제안돼 있는데요.

1번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 예상매출, 민간투자, 서비스 기간, 정부활용계획 등을 2027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는 주문이고요.

2번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방 이전 등에서 영호남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안배를 감안해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주문이 제안돼 있고요.

다음, 3번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계획 재수립 필요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이 제안돼 있고요.

50쪽입니다.

4번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악, 한복 등 고유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악방송 제작비 예산의 증액 편성 등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이 제안되어 있고.

5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와 관련해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 단말기 현황을 조사하고 기관별 교체계획 및 민간 시설 확산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이 제안돼 있고.

마지막으로 6번 국제 게임전시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 역할 검토 필요와 관련해서 K-컬처 산업 규모 400조 원 확대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스타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부처 차원의 구체적 역할과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이 제안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1번부터 6번까지 부대의견이 있는데 50쪽 4번에 정부 의견이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잘 몰랐던 거고 이견 수용입니다. 전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말씀 주실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차관님, 이게 결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장관께 질의를 드렸고 장관께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올해 세계경주포럼이 이제 곧 10월 달에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명이 글로벌문화창조산업포럼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세계경주포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거기에서 경주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 APEC 성공 효과를 이어 가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건의해서 세계경주포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역사문화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공모를 받아서 한다면 이 사업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상임위 때 드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업명을 다시 세계경주포럼으로 하고 경주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 문체부도 동의하고, 그러나 다만 이게 이름이 바뀐 것은 문체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내신 임오경 위원님하고 조계원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새로 해서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이게 사업명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우리가 게임 중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스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 이번에 못 나온다 그래 놓고 독일 등 이런 데는 참여를, 독일 게임쇼나 이런 데는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어떤 방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차관님하고 상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중주국으로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한번 깊은 논의를 통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우리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장님, 저희 딱 한 건만 결정을 보류해 놓은 것 나중에 2차관 다 하고 나서 다시 하실까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건 입장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논의를 할 것은 아니어서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의결을 못 하잖아요, 4명이라. 그래서 제가 따로 통보……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러면 의결 전에 최종적으로……

○소위원장 진선미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506호 문체위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체부차관님은 여기서 하셨고 2차관부터 거기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체부2차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국민소통실 소관 1번부터 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번입니다.

국제방송 지원 관련 광고료, 기금 지원금 감소 등 재단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은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 등 다수의 예산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연례적인 전용 및 세목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그 밑의 4번, KTV 운영 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집행해야 할 용역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비목을 편성·집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페이지 1번 국제방송교류재단 재정운영 안정성 점검 필요 관련입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한편 재단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입니다.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전용 및 세목변경 최소화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추진 시 집행실적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과약하여 전용 및 세목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입니다.

사업 성격을 고려한 비목 편성 및 집행 필요.

주의와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편성 및 집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굳이 쪽수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번으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1번 사업 관련해서 지난 예결위에서 아리랑TV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까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원체계가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변경 이후에도 국제방송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진선미 우선 의견을 다 받고, 주의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아직 안 계셔 가지고……

그러면 우선 3번 안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차관님,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까?

세목변경의 최소화 강구한다라고 하셨는데 강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절차를 밟

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강구하신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사업은 해외에서 주로 추진이 되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수요를 예측 못 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동안 예산이 전용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있어서는 일부수용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 기획예산처 지침에 학술자문 등이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용역비로 사용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명확하게 일반연구비로 자체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전용하는 절차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정을 했고 앞으로 매년 전용 절차를 잘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일반연구비로 실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또한 제도개선으로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3번 관련해서 국가이미지 홍보 등등 해 가지고 보니까 4년간의 결산내역 중에 2025년에 이월 부분도 있고 불용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전용 했던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APEC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급히 홍보예산이 필요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불용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가 이제는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관광을 확산시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의 대형 여행사나 그런 데들이야 자체 예산으로 홍보를 하지만 지역관광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전 지역에,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주 같은 곳은 APEC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도 좀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쓰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아무래도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 우선 우리 의견들을 다 좀 모아 보고 조정은 조금 후에 적정한 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5번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관광정책관 소관 5번부터 10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서부 충청 남부 등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지표인 공정률은 실집행률이 아닌 교부액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각 지자체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6번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번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은 일반연구비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일반연구비를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번 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개발 사업의 사업비, 주요 시설, 방문객 수 등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동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번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 중도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와 선정 단계 시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0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번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관련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을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자체의 실집행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번 일반연구비의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연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번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필요 관련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광개발 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 의무 등 제도개선으로 관광개발 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번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입니다.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차관님, 시정요구를 완화시키려고 하면 애초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어떤 식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뭔가 개선이 됐다거나 뭐가 이행이 됐다거나 이런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개선 내용을 얘기하시니까 그게 조금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설명을 좀 드리면요 광역관광개발 사업, 계획공모형 개발 사업,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사유도 저희들이 사업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각종 인허가 또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해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하고 하는 식으로 거의 유사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성과관리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성과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그 시스템에 자료 현행화를 입력을 제대로 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소위원장 진선미 그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그런 일들이 시행 이후부터는 한결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단계씩 좀 낮춰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은 처음부터 해 주실래요?

○김승수 위원 아니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그 전 것은 동의한 걸로, 정부 의견에? 예.

5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김승수 위원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문제부로서 한계가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해도 너무나 사업들이 지금 죽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 낮춰 주기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본예산의 거의 한 83%, 지자체 교부액의 94.8%…… 거의 대부분의 돈이 쓰지도 못하고 이월됐다는 지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장님까지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시정으로 그대로 남겨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저는 정부 의견에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주의로 낮춰 달라고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을 건의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가요? 지금 이월액이 본예산의 83%에 달함에도 보조금 교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의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그리고 실집행 기준 성과지표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떠넘기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말씀드리면,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계속 지방이양사업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넘기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방이양으로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 또한 마지막 보고 차원이지요. 공모해서 선정되고 마지막에 보고 차원만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은 100% 다 지방이양으로 내려 주는 사안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견제가 좀 어려워진 사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상임위를 하면서도, 모든 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장들의 사업으로 다 또 이게 변질되고 그런 사안들입니다. 정부의 처음 방향성이 A라면 A 방향이 아니라 단체장들의 방향으로 다 탈바꿈해 버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지방이양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거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지금 지방이양이 시작된 지 얼마 된 건가요? 뭔가 효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건가요?

○**임오경 위원** 이게 사안마다,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지방이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 1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게 지방이양으로 가지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저희가 재작년 국감이었나요, 순천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 3년 만에, 2년 만에 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들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관광정책관님, 실무자께서 좀 보텔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 강동진입니다.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광역관광개발 사업들은 예산편성 부분들이 재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됐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또 전담기관으로 문화관광부가 선정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그렇게 지방이양으로 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족했을 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을 냈고 그 법안이 통과돼서 10월 29일에 시행이 된다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제도들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되는 것에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게 사업이 계속 부진하고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에 대한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온…… 예산 요구됐지만 집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다시 또 이월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뒤에 보면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6번 같은 경우 실집행률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조금조금씩 실집행률이 높아 갔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균특회계 사업들이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 정도는 해도 너무하다는 거지요, 이월한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시정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아직 잔여 교부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말에 추가 교부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 법안 발의해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제도개선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6번 사업입니다. 이게 2026년 종료 사업이기 때문에 5개 전별로 올해 완료 가능한 사업과 이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을 구분해서 최종 완료 시점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잔여 예산이 남을 것이거든요.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관광정책관님이라도 답변을 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섬 관광 부분들도 광역관광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약간 사전 행정절차 지연 이런 부분, 인허가 문제 등의 문제는 있었고 또 하나, 섬 관광의 특성상 자료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랑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보통의 지역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지금 현재 55%로 알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월을 해서 공사가 완료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원래 2026년 종료 사업이잖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종료 전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는 건가요? 종료 시점에는 다 완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종료 시점을 조금은 넘길 것 같습니다. 27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체부는 지자체에 전액 교부해서 지금 집행률이 100%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집행을 23년, 24년, 25년 보게 되면 지금

퍼센티지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25년도에 50% 겨우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계속 교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조치 이런 거는 중간에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도 엄청 많은데 결국 탈락하고 나서 이것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엄청 많은데 섬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특혜를 준 건데, 대한민국에 섬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페널티가 있냐, 아니, 다른 건 다 없더라도 페널티라도 뭔가 부과되어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진선미 차관님이 그러시면 실무자께서 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제도적으로 페널티라는 부분들은 다른 법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효과적인 집행에 집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도……

○임오경 위원 아니,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러면 페널티라도 만들어 놔야지 더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예, 이번에 성과관리제도 시행되면 그것하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국민 세금을 쓰는 부분인데 어떻게 내부 관리 기준을 전혀 세우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교부해 왔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이양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달랐나요?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이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시설 사업이, 보조사업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교부한 이후에 더더진다고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시도별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자금 집행상황이 안 좋은 데는 다른 보조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도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어도 이 사업에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회수하거나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국회에서 결산 때 우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는다 그러면서 독려하고 하는데도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반복돼서 저희들도 죄송하기는 한데 하여튼 더욱더 독려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참 어렵네.

○김재원 위원 애초에 사업 계획 검토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됐어야 하는 거고 공정을 그 기한까지 완료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교부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등 이런 방안이 처음부터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더 심해진다고?

○임오경 위원 6·3 지방선거가 이번에 끝났으니까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의 의견이 좀 나뉘는 5번은 우선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예, 이 부분은 강하게……

○소위원장 진선미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1번은 정부 의견대로, 3번도 정부 의견대로, 4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5번은 보류하기로 하고요. 6번은, 김승수 위원님, 여기는 정부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선미 7번도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8번도 제도개선으로, 9번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임오경 위원님, 저희는 주의인데……

김승수 위원님, 지금 제도개선인가요, 주의인가요?

○김승수 위원 앞서 정부 측도 이것 주의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는 제도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사업 포기까지 해서 수십억씩 불용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입장 어떠신가요? 제도개선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주의를 얘기하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게요. 불용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9번도 좀 다시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진선미 9번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10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11번부터 1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은 지역 주도로 사업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획일화된 관광지 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문체부가 전국적 시각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2번 관광거점 육성 사업은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3번 이중산업 협업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의 ‘바다가는 달 캠페인’은 타 사업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중복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은 동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내역사업을 분리 편성 또는 재구조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4번 숙박활인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확대 추진하고 있

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15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역시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1번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소재 발굴 필요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그동안 이월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관리제도가 10월 달에 시행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바다가는 달 캠페인과 관련해서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숙박, 레저 등 할인 혜택은 여행가는 달로 통합하도록 하고 바다가는 달은 해양특화 프로그램 위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 효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두 부분은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뒷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숙박할인권 관련해서 시정,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년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했고요, 추경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향후에는 기금 변경을 최소화하고 본예산에 실제 참여 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전혀 문제 없게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5개소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 지금 지방비 매칭 각각 5개소별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퍼센트

지로 따져 봤을 때, 국비 지원하는 보조율하고 비교해서? 최소 매칭 비용이 50% 이상 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지방비가? 50% 이상 돼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소위원장 진선미 5개 도시 중에 매칭비율이 50% 이상 되는 곳이 있냐고 여쭙보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정률 보조로 50%로 하는 걸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투입·집행된 실집행률이, 국고보조금도 실집행률이 50%가 거의 안 되잖아요. 남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지금 그 사업 대비해서 지방비는 국고보조율만큼 이 사업에 투입이 됐고 또 투입된 것의 몇 프로가 집행됐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냐는 거지요, 자료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하면서 50%도 안 되는데 지방비 매칭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지방비 매칭해야 될 비용까지 해 가지고 집행률을 따지면 사업 진도율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관광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차관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일단 지원 조건이 자치단체 50% 이상이기 때문에, 매칭은 최소한 50%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칭이 된 거고요.

○김승수 위원 그게 실무자들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업 목표부터 정말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관광거점으로 지정받은 지역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도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래서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 그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돈만 투입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투입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효과가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 이런 사업에 시정을 안 주면 어디에 시정을 주느냐 그거지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서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숙박할인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가 코로나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도 많이 됐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번 추경까지 굉장히 크게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증액한 것의 절반 이상이 불용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 예산에 많은 절실한 예산을 당겨 와 가지고 여기에 썼는데 그중에 절반이 되도록 불용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25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관

광권 사업으로 점 사업이 아니고 동선 따라 이루어지는 실효적인 관광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거고요. 이월돼서 금년도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김승수 위원**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실무자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업 효과가 나오겠어요?

○**소위원장 진선미** 하나 여쭙보면, 지금 이 사업이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5년간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예산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뭐를…… 지방에 훨씬 더 재량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내용,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는 것은 여기서 뭐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쪽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사유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때문에 지연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방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도시가 선정돼서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시정을 하면 문체부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독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에 자료 입력도 제때제때 지방에 하도록 의무화가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지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이미 5년 다 되어 가는데……

○**김승수 위원** 차관님, 한번 보세요. 20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제대로 사업 집행도 안 돼…… 지금 투입된 돈이 지방비를 제외하고 국비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5개 도시에? 그런데 사업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고사하고 사업 자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문책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차관님, 집행 부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계속해서 6년째 실집행률이 40~60%를 못 넘고 있는데 왜 집행 부진인지 면밀하게 분석은 한번 해 보셨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거점도시별로 성과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성과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한 걸까요? 시스템 의무화하기 전에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월 달부터 시스템이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착오가 있는 것을 분석하고 대안·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시스템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이 사업, 또 다른 사업, 지방이양 사업 모든 게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청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서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시스템 의무화가 코앞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내년에 이것을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게 어떨지 요청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인데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안 하면 국회의원들도 의무 해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석기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가시는 게……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이게 다년간 사업이라서,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시정의 주체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계속 교체되시는 거잖아요, 바뀌고. 그러면 애초에 이런 식이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 책임의 당사자는 누구인 거예요? 5개년 계획을 세운…… 그것도 다 공모해서 도시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을 시정이라는 의미로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6년간 하고 평가해서 이후에 뭔가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거지.

○임오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당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게 시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법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개선하지 않고 계속 6년째 사업을 이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스템 의무화 10월 달부터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낮춰 줘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최초에 공모를 할 때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낼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공모에 지원을 한 것이었을 거고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 이행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안 하신 게 있었고 또 그것은 법의 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권고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다음번에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매년 결산 때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성과관리제도를 법에 마련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법 시행이 되니까 올해까

지만 지켜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지자체를 저희들이 더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가 부과됐는데 자료 같은 것도 제대로 입력 안 하고 등등 임무를 해태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들도 다 감사받고 나중에 징계 사유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지나면 이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관님, 자꾸 지방에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이 사업은 사업 설계부터, 지역 선정부터 그다음에 집행, 사업 관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문제예요. 사업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모한 지역이나 그렇게 선정한 거나 다 문체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이 부진한 거고. 이 사업 끝나 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거점은 고사하고 그 지역 자체도 관광으로서의 순기능이, 뭔가 보탬이 되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체부의 부실 사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아무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지적도 안 받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꺾야 된다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저는 주의 정도로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시고요, 계속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12번, 일단 보류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업의 경우에……

○**임오경 위원** 김승수 위원님 주의인데, 정부 의견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13번은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다 제도개선으로 동의하신다고……

○**임오경 위원** 저는 다른 의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7개 사업 있잖아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반려동물 동반여행 이게 20억짜리거든요, 인천공항 걸쳐준 사업이 8억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특색이 반영된 관광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거 넘겨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사업들을 제외하고 한국 문화·역사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인천공항 걸쳐준 사업……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특색이 반영된 관광자원의 개발과는—저는 모르겠어요—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26년도 이후에 사업 종료하기로 했고요.

○**임오경 위원** 종료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종료하기로 했고.

인천공항 K-관광걸쳐준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지적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충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소위원장 진선미**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들께서 ‘전국적 시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그 사업 발굴이 어려워서 아까처럼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집행률도 낮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하겠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발굴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번은 제안이 김승수 위원님은 시정으로 돼 있고 저는 주의로 돼 있는데 정부는 주의로 해 달라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그것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동의하고요.

15번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불용액이 높긴 한데 초과 신청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올해는 신청이 초과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게 25년도에 본예산이 70억이었는데요,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89억 원이…… 하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같았으면 좀 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반기에 추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집하는 데 애로가 있다 보니까 4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상당히 사업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위원장 진선미 반응은 괜찮다는 거지요? 초과 신청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주의로 좀 조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 부분도 저번 추경 때 국채 발행 얼마 해서 추경했는지 아세요? 국가가 돈을 빌려 가지고 추경예산 마련했잖아요, 세입을. 없는 돈을 빌려 가지고 세입까지 마련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데 쓰여야 되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89억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신청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추경 편성 단계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 뒤에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안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이 사업 관리를 해서 집행액이 절반밖에 못 미쳤으면 앞에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사람이 책임입니까, 뒤에 집행을 제대로 못 한 직원이 책임입니까? 둘 다 동일 공무원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 책임입니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여태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목표치가 한 101% 그다음에 24년도까지 95.4%.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상당 수준에 근접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추경의 긴급성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예측에 약간 실패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상반기에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저희가 시사점 받아 가지고…… 올해

도 14만 5000명이 목표인데 벌써 16만 1000명이 신청할 정도로 굉장한 호응과 그다음에 또 9.1배의 승수효과라는 효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님, 보세요. 어쨌거나 전체 예산의, 일억도 아니고 절반 정도를, 국민 세금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 못 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자 휴가지원은 이거야말로, 이것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근로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 설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억의 국민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저도 김승수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매년 예산 축소평가를 받았음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위원님들이 이것 추경도 반대를 했었고.

해마다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3년간 매년 예산 축소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규모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근로자 휴가문화 조성도 있지만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간 매년 예산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요청을 했으면 뭔가 그만한 자신감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7억 원의 불용이 생겼는데 무리한 추경 편성으로 52%의 예산을 불용했는데도 재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김승수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15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14번 말씀을 못 드려서 14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숙박할인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진되는 상시 사업으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경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숙박할인권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국비·지방비 5 대 5 매칭으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국비 100%, 추경 112.4억 원을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제, 통영이 이번에 수해가 아주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에 긴급 관광 회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특히 거제, 통영은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의 추가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한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기금 변경, 추경 의존도를 좀 줄이고 평시의 숙박 할인 수요는 최근의 집행 실적, 정책 수요를 토대로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수요가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관광 회복 긴급지원체계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등의 자체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희들도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재정 당국의 입장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김재원 위원 아니, 적극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네팔에 빙하가 떨어진 문제부터 해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 방법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 당국이 굉장히 빠빠하다고 얘기를 하실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의 긴급자금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할 겁니다. 거제, 통영은 숙박할인권을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저는 15번 관련해서, 이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뒤늦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나요?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가 기업 측의 부담이 15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5만 원.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5 대 5 매칭인데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오히려 참여율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해서 중견기업까지 참여시키되 매칭 비율도 똑같이 균일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난번에 의견 주셔서 부대의견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추경 편성할 때부터 중소기업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자꾸 타 부처 핑계 대는 것은 뭐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뜻과 다르게 결론이 나서 좀 그랬는데요.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재정 당국에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똑같이 하고 중견기업까지도 포함을 시키되 저희들은 다 열어 놓고 중소기업을 먼저 우선해서 하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중견기업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지 차원도 있지만 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처음부터 다 열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또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소비 여력도 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방의 활성화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의 노동자들이 더 도움이 되니까 중소기업 차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열어 놓고 같이 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제도개선이고, 12번은 아직 보류고요, 시정이나 주의나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제도개선으로 조정이 된 거고, 14번은 주의로 김승수 위원님이 아까 동의해 주셨고, 15번은 시정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16번부터 다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16번부터 20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사업은 발급자 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조계원 위원 주의, 제도개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김영일 주의,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과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18번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지자체의 실행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관리를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9번 관광두레 사업은 지원종료 주민사업체에 대한 성과관리 비중이 미흡하고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주민사업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번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은 운용사 선정 지연으로 자펀드 결성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결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6번 디지털관광주민증 관련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용자 혜택과 접근성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7번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과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또 각종 하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사항으로 지연이 되었고요.

무장에 관광 사업은 휠체어 탑승 가능한 전용차량의 납품 이런 게 지연되고 해서 집행이 좀 부진됐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를 통해서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5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 향후 지자체와의 사업 추진 시 효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관광두레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관광두레 지원 종료 주민사업체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지표를 개선하겠습니다.

20번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의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 필요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운용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자펀드 조기 결성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자체는 지금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발급 건수가 749만 건이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누적 이용률은 4.6%에 불과하고 실제 참여 지역 중 절반 정도는 이용률이 거의 0~1% 정도에 그친다. 그러니까 발급 건수가 지금 얼마 된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급 건수 아무리 많이, 700만 건 이상이 발급이 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나가서 이걸로 우선 주민증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관광효과가 있다고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증 발급 건수로 봐서 이 실적을 쌓겠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걸 통해서 보다 지역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과연…… 지금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해서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닌데요.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고 참여 업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예산도 좀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별도 앱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가입하는 시군이 좀 더 늘어나고 또 건수로 보면 4.6% 이렇게 나오지만 사람으로 보면 그래도 이용률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 사용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군에 가면 주로 음식점이나 관광지, 상품점 등등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할인을 받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알려져서 이거 사용 못 한다는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사용처를 더 넓히는 다른 대안들은 따로 모색하는 게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 원으로 확대 편성이 정부안에는 돼 있는 상태고요.

○정연욱 위원 제도개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발급률에 비해서 실제 사람으로 따지면 훨씬 사용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일인당 디지털관광주민증 이게 발급이 보통 몇 사람, 몇 개나 발급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들끼리 한 얘기인데 이럴 바에는 디지털관광국민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계원 위원 지역별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당 3개의 시군으로 제한한다든지 5개로 제한한다든지. 44개였는데 지금 52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52개를 다 클릭해도 되게끔 이렇게,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개별 발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40개 지역에 관광주민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게 인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상점에서? 그러면 각 지역별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지역별로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융통성 있게 하나의 동일한 양식하에 지역코드만 더 추가를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신청할 때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은 맙시덤 5개면 5개 제한을 두면 5개까지 딱 신청해서 그 코드만 갖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냥 각각의 관광주민증을 제시하고 할인받는 형태냐 이거지요, 해당 지역에 가서. 이해 안 돼요?

누가 답변을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지금은 별도로 돼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민간에까지 연계하고 그다음에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통합해서 코드화를 하면, 어차피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용 따로따로 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했는데, 40개

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그 40개를 개별로 띄워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게 위원님, 저도 일부러 가입을 해 봐서,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 가면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10개 정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그 해당되는 시군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할인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조계원 위원 제가 말한 것은 관광주민증을 그 지역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관광주민증을 발급하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지역의 코드만 등록하면 하나의 양식으로 통용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게 각 시군마다 다른 주민증이 발급되는 게 아니라……

○조계원 위원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 두 사람이.

○소위원장 진선미 그거 관련 함께 해서 제도개선.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지금 디지털관광주민증 일단 아이디어는 당연히 가야 될 아이디어인데 정책 설계가 이것도 영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시행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정해 주는 예산이. 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문체부 예산? 관광공사에 돼 있던 것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실집행률로는……

○김승수 위원 아니,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 부분을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사용해 가지고 요금을 지불했을 때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느냐는 거지요, 관광공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지금 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1400개 참여 업체가 지금 가입했는데도 이용률이 많거나 할인률이 높은 업체 일부를 선정해서 홍보 마케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인센티브를 같이 주나요? 실제 디지털주민증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나 지금 문체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디 지역에 관광 가는 국내 관광객이 그런 식당이라든지 유명 관광지라든지 이 부분에 사용된 횟수 가지고도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특정 맛집에, 특정 식당에, 특정 관광명소에 많이 사용됐으면 다른 데 안 찾아봐도 저기가 굉장히 관광명소구나, 맛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개 중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 특정 기간 중에는 몇 개 지역에 그

시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특정 지역에만 너무 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외 관광객들한테, 특히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빈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업소는 업소대로 또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게 하나의 자극 요소도 될 수 있고 또 경쟁 요소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용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치밀하게 정책 재설계를 하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도 제대로 추계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17번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김승수 위원 저는 나머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업이 부진한 거는 진짜 사업 발굴이 애초에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성격을 규정지으니까 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더 규모를 키워서 자원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요.

예를 들면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이러면 이거에 적합하게 추진하는 거가 진짜 어떤 건가 싶기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는 김승수 위원님이 주의로 했지만 제도개선에 동의해 주신다고 했고요. 16번도 그러신 거지요?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16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했고 17번도 마찬가지고요. 18번은 이미 수용이 돼 있고요. 19번도 수용이 됐고 20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됐는데 이 세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16번하고 19번, 20번까지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 정부의 관광 기조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지역으로 관광을 많이 가도록 하자, 특히 해외 관광객들.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광두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좀 마련을 해서, 그리고 관광두레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부분에 있어서 미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투어나 이런 대기업 관광회사들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에서 해외에서 충분히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만든 관광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20번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사업부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부분 그다음에……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외 관광객들이 이용을 같이 해서 재방문할 시에 더 활인을 해 준다는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 가지고 이런 관광 부분의 정책 부분이 아예 설계 자체가 다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수

요를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성과지표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광산업 매출액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김재원 위원 지금 관광정책을 재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이런 개별 사안들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원장 진선미 아마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관님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관광을 보는 관점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조금 더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21번부터 24번까지인가요?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조금 늦어지는데요.

○전문위원 김영일 국제관광정책관 소관 사항 21번부터 2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번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일정 수준의 감축 권고가 있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장평가 취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22번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중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일몰로 인해 예산 감축 요구가 있었으나 기존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일몰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23번 관광 편의성 제고 사업은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은 사업 취지와 다르게 방한 단체 관광객에 대한 버스비 지원 등에 집행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초 사업에 맞도록 K-산업 분야의 기업체,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1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취지를 존중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사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일몰사업 유사 재편성 지양 필요 관련입니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연장평가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사업 도입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관광 편의성 제고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공모 신청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재원 조달계획의 구체성 등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 지연 요인 해소 지원 및 정기적 집행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4번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신산업 분야의 기업체,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다른 것은 동의하고요.

24번은 당초 취지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말 그대로 신산업관광 했던 성과가 있나요, 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입니다.

신산업관광 사업은 산업현장과 기업체 등을 방문하는 관광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모터스튜디오나 농심 이스포츠사옥, 넷마블게임박물관 또는 삼양라면 공장 등 기존의 대표 관광 동선에는 포함되지 않은 산업 지역들을 포함시켜서 그 루트를 돌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산업현장을 개보수하거나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그 산업현장이 관광지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관광 루트의 교통비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입장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해서 그 산업관광지로 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 저희가 선정한 산업관광지역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이랑 연계해서 모객을 해 온 사업이고, 지금 지적받은 건은 저희가 모객을 위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진행했지만 사실 마케팅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단발성 지원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27년도 예산에서는, 신산업관광 육성이 전체 계속 반영되었던 그 내용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27년도에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승수 위원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필요성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쪽 설명은 길게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모객 수 등은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없어졌는데 무슨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지도록 만든데 데 대한 담당 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사업이 없어졌는데 제도개선이 아니고 최소한 주의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장입니다.

○조계원 위원 사업이 통으로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신산업관광 육성이라는 내내역사업은 없어졌고요. 테마관광이라는 큰 틀로 묶여서 그 안에서 공연관광이라든가 별도의 스포츠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급 관광으로 묶인 테마관광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신산업 관광만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 방문 관광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그것을 특정한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외래 관광객들을 모객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는 식으로 명동에 모여라, 여의도에 모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마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대의견에 있었지만 크루즈 관광 입항 할 때나,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인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때 교통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객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이 내용들은 신산업관광지를 가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연욱 위원 꼭 신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보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객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객이 어떤 절차로 어떤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대부분 해외지사를 통해서 모객은 이루어집니다. 크게 관광이 국제관광객이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마케팅 활동은 해외지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정연욱 위원 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정연욱 위원 얼마 전 인도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찾아온 적도 있고 하는데 기업들 상대로 브리핑 설명회를 열어서 보통, 얼마 전에 인도에서 큰……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허벌라이프……

○정연욱 위원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가지요. 실제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솔직히 이 사업 내용보다도 사실상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외국 관광객들의 모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에 우리를 찾아온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본 전제는 사업 내용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집단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객 활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해외지사별로 주요 시장인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관광로드쇼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의료관광 부분은 의료관광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인센티브관광은 인센티브관광별로 해외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5000명, 1만 명 이런 대규모……

○정연욱 위원 말씀한 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해외지사를 통한 모객 활동도 있을 것이고, 상시적으로 부산이나 여수나 큰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크루즈관광선을 통해…… 상시적으로 집단적으로 모객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이루어져야 그냥 단순히 크루즈관광객들이 하루 잠깐 어디 들르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모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오전에 내려서 하루 정도 돌고 오후에 들어가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모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해외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모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부산에서는 크루즈관광객들이 어디를 들르냐 가지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느 코스로 방문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지자체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상시적인 모객이 이루어지는…… 크루즈관광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문제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해외지사에서 하는 몇 가지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큰 건 몇 개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이런 크루즈관광의 모객,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상품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크루즈관광 모객 활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좀 갖춰져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한편 이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이라는 게 내내역사업에서 없어졌다는 부분은 참으로 애석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K-푸드, K-뷰티, 자동차, IT, e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한국에 와 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배려가 없다. 오히려 지금 한국 쪽에 와 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해 가지고 일반 모객과 마찬가지로 지원했었으면 그 지역의 마이스산업도 같이 발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내내역사업에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시고 설계를 했었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관광정책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에 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 새로운 시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이게 안 될 것을 알았어야 했나……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도를 했지만 시도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이

게 잘못했거나 시정하거나 주의하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도개선이라는 것 안에는 어쨌든 제도개편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종료하고 다른 식으로 다시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주의로 해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까지 막아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면 앞서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사업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업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만든 신규사업에 예산까지 반영시켜 놓고 나서 목적대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업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는 고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순한 제도개선 이상의 최소한 주의 정도의, 거기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요. 김재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일단 매칭 역할을 하는 건데 관광객과 관광객을 받을 신산업체인데 문체부가 다른 IT나 디지털 이런 산업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K-콘텐츠산업 또 뷰티, 의료관광 이런 쪽은 충분히 문체부도 어레 인지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 이고.

보면 모객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정연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루즈 프로그램 짜는 것도 대형 여행사에서 프로그램 짜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기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 보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관련 되는 업종 이런 데에 매칭을 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면 또 중국 인플루언서들, 왕홍들 이런 사람들 초청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그 친구들 부르려 그러겠지요.

조금만 노력해 줬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더 확대도 시킬 수 있었던 것을 없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 정도의 경각심을 주면서, 큰 틀에서 지금 테마관광 쪽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하나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살리고 부각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로는 너무 아쉬우니까 더 뭘 했으면 효과가 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또 주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무난한 사업만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쉬움이 있나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아까 말씀 주실 때 사업이 없어지게

했다라고 표현 주셨는데 조금 부대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방한관광을 홍보하는 콘텐츠로서 신산업 기업체라든가 현장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래 관광객 유치하는 큰 축의 사업은 한 축은 방한관광을 광고하고 소개하고 홍보하는 축이 있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마케팅하는, 두 축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하는 콘텐츠는 다양하게 수많은 아이디어들 다 만나서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하는 것들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합관광 콘텐츠 활성화 안에 있는 신산업관광 육성이라는 부분은 직접 마케팅하고 모객하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모객을 해 오는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은 기예처에서 이 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줄였다기보다는 저희가 1126명 정도 직접적으로 모객은 했는데요.

이런 신산업관광 외에도 스포츠라든가 마라톤, e스포츠, 저희가 융합관광으로서 모객해야 되는, 마케팅해야 되는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신산업관광 모객보다는 다른 쪽의 다양한, 요즘에 등산도 유행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뜻이지, 이 사업이 사실 문제가 있거나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서 정리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임오경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청한 게, 제가 차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집행률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것은 조정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한다고 말씀 들어 보니 저 또한도 이것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오히려 좀 미비한 부분을 저희가 더 충족해 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남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충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좀 설득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따 정회 동안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임오경 위원 큰 문제가 있지 않대요.

○조계원 위원 다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수용하지 말고.

○임오경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승수 위원 주의를 수용한다고 차관님도 얘기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정 요청하셨는데 주의를 말씀하셔서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김승수 위원 사업이 없어졌는데 뭐 이제 와서.....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개편을 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것.

○김승수 위원 내역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치명적이지요.

○임오경 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빨리 접고 새로운 것을 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은 취지지요.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뒤엣것에서 더 세계……

○김재원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신산업관광 육성 사업 자체가 내역사업에서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K-푸드 등 한국산업 경쟁력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측면에서 내역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다른 것으로 대체 돼서 등산, 마라톤 이런 쪽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저희가 지출구조조정 할 때 금액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소액 다 건넵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줄이면서, 지금 융합관광콘텐츠 쪽은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제기될 때마다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으로 계속 분화해 와서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옥쇄가 되고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도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관리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지출구조를 통폐합하면서 크게는 공연, 스포츠, 고급관광으로 묶어 냈는데요. 고급관광 안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이엔드, 럭셔리 관광도 있지만 그 안에 산업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산업관광지를 보여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역으로 쪼개져 있던 것들이 통폐합되면서 신산업 육성이라고 한정돼서 산업 현장만 하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만드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새로 내역사업으로……

○김재원 위원 그렇게 편성한 새로운 내역사업 내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산업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왕흥들에서부터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 분들, 어쩌면 투자자들 등등을 유치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21번의 첫 번째 조은희 위원님의 주의를 수용하시고 두 번째 것은……

21번에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거든요.

○조계원 위원 아니, 하나인데……

○소위원장 진선미 21번 안에 2개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 앞엣것은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22번과 23번은 수용됐고요, 정부 의견으로.

24번은, 김승수 위원님, 제도개선이요?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진선미** 각별히 더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반영해서 가지고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게 잘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25번부터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체육국 소관 25번부터 31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지출 비중이 정채·감소 추세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금이 관련 분야에 우선 배분되도록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가맹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었고 이에 대해 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사업은 최종 실행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고령층의 이용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징계,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28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은 실사용률이 저조하고 적립 시설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일부 맞지 않는 비목으로 시스템 구축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적정 비목을 편성하고 적립 시설 확대, 적립 방식 다각화, 유사 공공 앱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주의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29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행행률이 부진하고 지자체 간 집행률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모 단계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검증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불용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31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등 집행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연계, 영세 스포츠 기업용 보증제도 도입, 별도 용자트랙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5번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유·청소년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26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가맹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번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사업 관련.

징계,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향후 유사 어르신 사업 수행 시 고령층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번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관련.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집행 점검 및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적립 시설 지역 편중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튼튼머니 적립·사용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연계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번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시정, 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모 선정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학교체육 육성 관련.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사업은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는 유소년 스포츠기반 구축사업으로 통합하고, 대한체육회에 국비 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31번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관련.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실수요와 시장 상황을 엄밀히 반영한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뒷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십니까?

○김승수 위원 예,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지금 최종 몇 월달까지 한 거예요, 58%까지 올리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올해 6월 사업 종료 기준으로 최종 실집행률이 58.3%입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수차 연기하고, 연기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올 6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60%에 못 미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260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애초에 이것 260억 편성하라고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니까? 이거는 애초에 안 될 사업이었어요. 어르신들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렇게 하도록 했지요.

특히 시골,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것 이용이 됩니까? 될 수 없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고 또 추경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결국은 불용이 나오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지요.

○조계원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선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특성에 잘 조응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익숙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접수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물카드 이런 형태로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사용률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정책을 그렇게 좀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026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만으로 바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전에는 바우처 신청하는 절차 이런 게 좀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워서 그런 지적을 수용해 가지고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실물카드네요? 카드를 줘서 쓰게끔 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위원님, 작년의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로페이랑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쓰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작년에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작년 사업을 할 때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사업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해 주는,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쓰려고 해도 지역에서는 쓰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좌를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체육국장 이선영 보고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강좌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 이용료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작년의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시설 이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카드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게 개편을 한 거고요. 다만 이거는 작년 추경에 있는 바우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냥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바꿨다고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25번을 보게 되면, 2019년, 24년, 25년 생활체육 참여율 보게 되면 이 퍼센트가 정확한 건가요, 우리 문체부에서 조사한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젊은 층, 기성세대,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어르신들, 모바일로, QR코드 인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아날로그로 해서 방식을 조금만 바꿔 주기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도권은 인프라가 없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노출된 데서 생활체육 등록하고 하는 사람들, 등록하지 않고 사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인프라 부족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행정복지센터 가게 되면 아이들부터,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복사업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중복사업이 있게 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은 아날로그로 빨리 바꿔 주십시오. 어르신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바꿔 주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로 다 몰리고 있지만 여기는 크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 무료화로 했기 때문에, 또 등록하지 않아도 그냥 참여할 수 있고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료화를 하더라도 모든 분야 어르신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 인구가 얼마큼 늘어났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이게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7 대 3입니까, 6 대 4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매칭이 아니고요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민체육센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지금 4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억이라서.....

○임오경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매칭사업으로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고 들어갔을 때 저희가 40% 지원받았습니다.

언제 100%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100%가 아니라 매칭 비율이 없고요. 정액으로 40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임오경 위원 그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는 6 대 4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매칭사업을 그전에 했을 때. 그래서 그 예산 또한 40억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저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은 못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층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의 경쟁구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

서 그 액수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도권에다 지을 때는 5층 건물은 지어야 됩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2층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는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없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어 놓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액 40억이라고 하는데 그 액수를 좀 더 올려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방과 수도권은 액수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40억으로 딱 해 놓게 되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40억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저희들도 좀 증액을 요청해서 2028년도부터는 45억 그리고 2030년부터는 50억 이렇게 재정 당국과……

○임오경 위원 조계원 위원님은 여수잖아요. 40억이면 하나 지을 수 있지요. 한 3층, 2층……

○조계원 위원 지어져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짓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땅 매입도 안 됩니다, 장소 매입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보통 250억 정도 하거든요, 대형 센터를 짓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40억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경량형,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정도의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방향도 도입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원 비율이 좀 높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저희가 정회해서 좀 쉬기도 해야 돼서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한 게 25번부터 31번까지인데 의견이 좀 나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앞에서부터 자꾸 얘기가, 항목들은 다 달라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산 회의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냐, 어떠한 사업을 벌임에 있어서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돈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또 거기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국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과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 집행 적정했느냐 혹은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모든 면에 있어서 2차관님 소관의 이 사업들이 설계가 매우 치밀하지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행의 단계와 정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남고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어도 그 다음 번에 추가로 또 같은 항목으로 돈을 더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안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다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래서 이 부분 차관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가지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2차관 소관 뒤에 아직 설명 안 한 것까지 다 해서……

일단은 앞서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사업은 분명히 사업 자체부터,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무자들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수없이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들도 들어 보고 했었는데 실제 징계를 요구하면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안 지고 이 엉뚱한 사업을 밀어붙여 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도개선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저 뒤에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몇 번이요?

○김승수 위원 31번. 앞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용이 돼서 감액까지, 엄청나게 큰돈을 감액했었는데 올해 26년도 예산은 또 똑같이 확대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이 부분의 불용이 지금 대폭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정을…… 거의 1000억 가까이 감액을 한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획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싶어서 저는 시정으로 주장을 합니다.

뒤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가요?

31번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김승수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1년 늦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약 50% 이상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이 2481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36억으로 정부안에 이것을 이미 반영을, 1년 먼저 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나마 반영을 좀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구조조정을 하셨다 하면 결국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선제 시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을 김승수 위원님이 선제 시정으로 받아 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조계원 위원 이따 오시면 그것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그러면 저희 지금 2시간 20분이 지나가서요. 지금 4시 19분이니까 20분 뒤면 4시 40분, 일단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진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32번부터 빠르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체육협력관 소관 32번부터 34번까지 그리고 사감위 소관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번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 중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은 사업이 지연되고 건설보상비 중 일부가 성격이 다른 타 프로그램 사업으로 변경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심의 의결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타 사업으로의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입니다.

33번 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사업의 경우 진척도가 낮고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 지자체 및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처우 개선 방안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1건, 35번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은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신규 지역센터 설치, 전문상담기관 확대 등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과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2번입니다.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시정, 주의 중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착공 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목적 외 집행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성과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4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및 특수지도수당 신설,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번 도박문제 치유·재활 서비스 관련입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역센터 추가 설치 및 민간 전문상담기관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치유·재활 서비스 공급 부족 및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위원님, 32번 관련해서.

○임오경 위원 이것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건설보상비 5억 1600만 원을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 집행한 거잖아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회가 심의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본래 목적과 배치됩니다. 목적 외 집행을 최소화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것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사안인데 이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절차적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목적 외 집행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셨으니까 주의로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실무 담당하신 체육협력관께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강대금 체육협력관입니다.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원래 부지가 원주의 교육지원청 소속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다시 도의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 불용액을 우리가 기예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다른 경로 쓴 것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어떻게, 동의?

○임오경 위원 저는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가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비 성격으로 타 프로그램 사업에 변경 집행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목적 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주의를 주셨으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요청하신 것 제가 정정해서 그렇게 주의로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해서.

○소위원장 진선미 수용하시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예.

○조계원 위원 그다음은 다 수용이라 없네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그러면 부대의견 설명 좀 해 주시고.

(진선미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임오경 위원님들, 나머지는 정부 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의견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관련해서 전문위원……

○**김재원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번 관련해서.

○**소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제도개선, 수용 의견이니까 그 의견은 변한 게 없고요. 이 도박문제가 예방·상담·치유·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지금 울산·세종·충남·전남에는 독립 지역센터가 없고 전문인력도 지금 지역센터 128명, 전문상담기관 112명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진선미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예방부터 치유·재활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확충이 돼서 이런 센터 건립서부터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관님도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사무처장입니다.

○**김재원 위원** 예, 사무처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소년이 곧 커서 군인이 돼서 군 도박도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면서 말씀 주신 전남은 금년에 지역센터가 신설되고 내년에는 충남을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 작업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상담인력 확충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이진식**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일**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관련한 예산 상향 방안 검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 사업 예산, 스포츠도시 모델 그다음에 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거제 통영 등 특별재난지역의 관광 수요 회복 방안, 파크골프종목 종합적인 지원·관리 방안 그리고 폭염 중 경기 안전 확보 방안 그리고 야구장 등 관련 시설 확충 방안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개 의견에다가 더해서 김석기 위원님께서 아까 경주 APEC 관련한 세계경주포럼에 관한 부대의견을 추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 동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차관 소관입니다.

○임오경 위원 동의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잊지 않고 부대의견에 추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류를 해 놔던 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처인 문체부에서는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실 거라는 다짐을 해 주신다고 전제하고 정부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이상으로 문체부1차관·2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 2차관 소관, 그동안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변상 건은 없고요 징계 건도 없고 시정 4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2건에서 중복 1건을 제외한 총 8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체부 김대현 차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국가유산청은 거의 다 수용인데 일부수용만 논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그럴까요?

○임오경 위원 위원님,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혁신적인 안을 주셨네요.

○김승수 위원 6번, 9번, 13번, 15번, 4건만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국가유산청 전체 논의하는 것 중에 정부와 동일한 의견을 갖는 것은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논의가 돼야만 하는 6번, 9번, 13번, 15번,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말씀 주신 대로 심사자료 중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시정요구 유형과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8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건인데요.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부액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전액 이월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점검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주문으로 시정요구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입니다.

연번 9번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실집행 부진 관련 결산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건인데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국회 결산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전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한 보조금 교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전절차 진행상황 등을 실제 교부액에 반영하고 잔여 보조금 교부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5쪽입니다.

연번 13번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건인데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이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속적 집행 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시정요구하셨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7쪽입니다.

연번 15번 사항인데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건입니다.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률이 저조해서 준공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일정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각각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 둘 중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집행관리를 더 철저하게 기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방문자지원센터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번 9번도 시정하고 제도개선 요구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이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75.8%까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감안해 주서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세계유산 관련되는 관리지침이 있는데 이것도 개정해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의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도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청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앞으로 조정을 하고 또 이건 현장에서의 실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지자체에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15번 고도 탐방거점 조성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25년도에 경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부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인데 사실 아직도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해서 국가유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부지 선정이 되면 이것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부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앞의 2개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지난해에도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주의를 받았는데 또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제도개선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주의 이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의로 저는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 15번 같은 경우에도 다수 위원이,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까지 주의 요구를 해서 다수 의견으로 주장을 해서 주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15번에 김승수 위원님은 주의로 말씀하셨는데 김석기 위원님께서 먼저 이석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더라고요. 부지를 선정했는데 다시 지금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문화유산이 나와서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되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첫 번째 부지는 문화유산 때문에 거기다 건물 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지가 있었는데 문화유산이 발굴되면서 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새로운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약해져서……

김승수 위원님,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정연욱 위원** 주의로 얘기하신 분이……

○**임오경 위원** 아니, 그랬는데 김석기 위원님께서 이석하기 전에 문화유산이 나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됐다, 늦어졌다……

○**조계원 위원** 김승수 위원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요.

○**임오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김석기 위원님이 저한테만 설명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얘기하실 기회가 없었어요.

○**김승수 위원** 저는 굉장히 관대하신 임오경 위원님이 이걸 주의를 줘야 된다고 해 놔길래 주의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임오경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부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문화유산이 발굴되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차질 없이 빠르게 부지 선정해서 진행되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으로 요청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13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도 주의를 줬는데 이번에 또 지적이 됐는데 제도개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13번은 주의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정부 쪽에서 이게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13번.

○조계원 위원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사실 작년에 주의를 받았는데 실제 실집행률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수용을 하고요. 주의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주의를 수용하신답니까.

정부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 수용했던 부분들을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꼭 이 말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재원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원 위원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13번도 계속 제도개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그렇게 13번은 주의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대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부대의견 총 4건인데요.

1번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부와 개체수·서식지 조사자료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취약종 조사와 서식지 보호·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주셨고.

2번 국가유산보수정비 및 고도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해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집행률 및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원만히 추진하며 제2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궁궐유산관리운영 건과 관련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설치·교체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4번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과 관련해서 국외사적지 관련 예산, 인력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국외사적지에 대한 관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주문으로 부대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측 입장은 4건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심사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산청에 대해서 변상·징계·시정 건은 없고요 주의 4건, 제도개선 14건 해서 총 18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기타 정책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애쓰셨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리신 최보근 차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애쓰셨고 보좌진들과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전반기에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아주 놀라운 고견들 잘 듣고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처가 그냥 단순히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나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석기 김승수 김재원 임오경 정연욱 정준호 조계원 진선미 최민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김영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중무실장 김도형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명수현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소통정책관 장경근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협력관 강대금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자연유산국장 황권순
역사유적정책관 김동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장 강수상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 이은석